

코로나 재확산 방지, 주요 대기업 숨가쁜 대응책

# “흠어져야 산다” 재택은 기본, 언택회의 등 사실상 3단계

삼성·LG·현대차·한화 등 재계 사내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재택근무 확대해 확산 방지 기여 자체적으로 3단계로 전환하기도

삼성전자와 LG, 현대자동차그룹 등 재계 상위권 대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확대 등 교육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이번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사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한화그룹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3단계로 전환했다. 한화그룹은 모든 계열사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교차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룹 국내 임직원의 70%가 재택근무에 참여한다. 업종이나 사



주요 대기업들이 사내 연수원 시설을 코로나19 경증환자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삼성화재 고양 글로벌 캠퍼스, 경기도 이천 소재 LG인화원,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



주요 대기업들이 사내 연수원 시설을 코로나19 경증환자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삼성화재 고양 글로벌 캠퍼스, 경기도 이천 소재 LG인화원,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

별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근무 인력의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인력은 공장이나 건설현장, 사업소, 업장 등 현장 기준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며 사무직은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로 한정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단체집합을 모두 금지하고, 사업장 건물의 층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팀별로 최소 50% 이상 인원에 대해 부문별 성격에 맞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기간도 최소 3일부터 5일까지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9월 한 달 동안 재택근무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소비자가전(CE), IT·모바일(IM) 사업부문의 디자인, 마케팅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3단계 발효시 정부 지침에 따라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택근무는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모든 사업장의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특히 LG전자는 각 사업부별로 최소 30%의 직원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임산부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 만성·기저 질환이 있거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 등에 한해서만 재택근무를 실시해왔다.

LG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순환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사내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

SK그룹은 수도권에 위치한 연수원 4곳(총 321실 규모)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경영 철학’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 등 사내 연수원 두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내놨다. 180실 규모를 갖춘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경증환자 치료·모니터링 및 생활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소재 LG인화원을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이곳은 욕실을 갖춘 원룸 형태의 객실이 마련돼 있으며, 규모는 300실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 파주인재개발센터를 해외 입국자 대상 임시 생활시설 용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규모는 총 60실로, 현대차 직원들의 직무 및 어학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곳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5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제공했다. 이번에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할 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산, ‘1조 할인’ 産銀에 ‘재실사’로 회신

이메일로 12주간 재실사 요구 아시아나 ‘노딜’ 가능성 커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밝혔다. 이에 따라 M&A(인수합병)가 결국 ‘노딜’(인수 무산)로 끝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일 이메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산업은행(산은) 등 아시아나 채권단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달 26일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이 회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M&A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현산 측과 인수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했다”며 “이에 대한 현산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일정은 답변 내용에 따라 금호산업 등 매각주체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현산이 금호산업과 채권단에서 앞서 거절한 바 있는 재실사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결국 ‘노딜’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름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M&A를 놓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내부적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산이 재실사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딜이 깨졌을 때를 염두에 둔 것 같다.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 주체인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날선 책임공방을 연일 벌여왔다. 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강조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12주간의 재실사를 지난 7월 26일 요구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으며 재실사를 거부하고,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소액청약자 배정, 형평성 원칙 적용돼야”

>> 1면 ‘고액자산가 놓이더’서 계속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열기가 과열된 공모주 배정에 있어서는 소액청약자는 공모주 배정 기회가 매우 적고, 고액자산가나 대졸청약자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

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기관 등 전문투자자에 대한 배정 자율성은 수요에 즉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장기투자유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투자자 등 일반청약자 배정은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청약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 공모시장이 항상 인기를 끌 것이란 보장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락장에서 개미들이 손실을 입을 경우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공개(IPO) 청약결과 최종경쟁률은 1500대1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만 58조5000억원이 몰렸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통장·신용평가·패스… 금융 전방위 공략

>> 1면 ‘데이터로 뭉친’서 계속

SK텔레콤도 지난 2016년 하나금융그룹과 모바일 기반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작투자법인 ‘핀크’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 6월 핀크는 KDB산업은행과 손잡고 자유입출금 금융상품인 ‘T이득 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T이득통장은 최대 2%의 금리를 복리로 제공하는 통신사 주도의 ‘테크핀’ 상품이다. 이외에도 DGB대우은행이 협력해 선보인 ‘T 하이5 적금’은 출시 1주일만에 5만여명의 가입자를 모으기도 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차세대 신용평가 모델인 ‘셀러 스코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중소 셀러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기존 금융 정보 기반의 신용 평가 방법을 보완해준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 다양한 금융사와 함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 모델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모바일과 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의 편의도 높인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 한국관광연구원과 함께 모바일,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산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지 및 방문 순서 ▲성·연령에 따른 선호 관광지 ▲주요 관광지 인근 상권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 발효 후 첫번째로 진행되는 가명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작업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을 통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특정 관광지 근처의 상권을 개발하거나 젊은 여

행객에 맞춤형 홍보를 시행하는 등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 CNS 및 금융데이터거래소 운영자인 금융보안원과 함께 통신·금융·제조 데이터 융합 사업 추진을 위해 손잡았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외에도 데이터 활용, 융합데이터상품 개발,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데이터를 금융데이터와 결합하고, 데이터상품을 개발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통신데이터를 상품화해 다른 산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하면 새 서비스 데이터 상품을 개발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도 순항이다. 현재 패스앱 가입자는 3000만명을 돌파하며 기존 공인인증서가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해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패스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탑재해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는 NH농협은행,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손잡고 시중은행에서도 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댐’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과 통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려는 움직임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